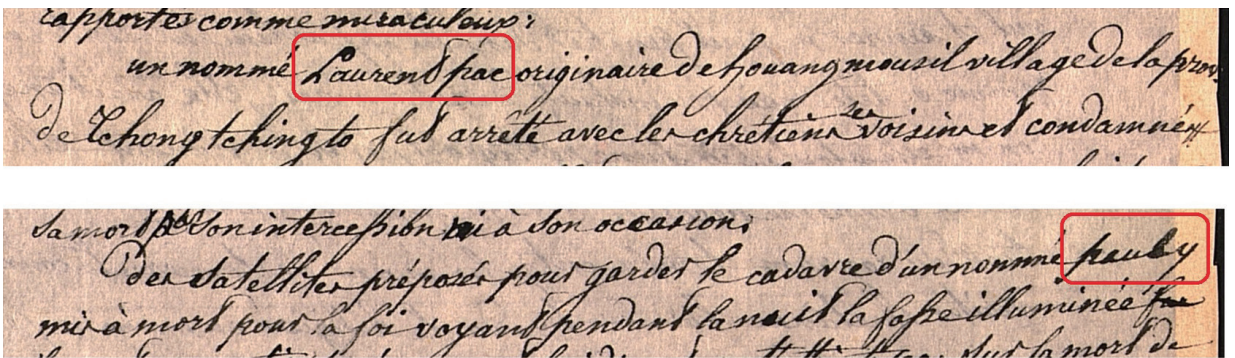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순교복자 이도기 바오로, 박취득 라우렌시오, 김세박 암브로시오에 대한 최초의 교회측 기록 -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다

1836년 1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모방(Maubant, 1803~1839) 신부는 서울과 지방을 돌면서 신자들을 방문하여 성사를 주는 등 사목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동시에 조선에서 순교한 신자들의 행적과 기적 일화에 대해 조사하여 서한에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124위 순교복자 중 3위에 대한 기록이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며, 이 기록은 3위 복자에 대한 교회측 자료 중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즉, 모방 신부가 3위 복자에 대해 교회측 최초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모방 신부의 서한에 나오는 3위 순교복자는 1797년에 잡혀 1798년 정산에서 순교한 이도기(바오로), 1798년에 자원으로 잡혀 1799년 홍주에서 순교한 박취득(라우렌시오), 1827년에 잡혀 1828년 대구 감옥에서 순교한 김세박(암브로시오)입니다.



[그림1] 모방 신부의 1836년 12월 9일자 서한(A-MEP, Vol.1260, f.110)

위의 3위 순교복자에 대한 교회측·관변측 자료들은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자료집』 1집(2005년) [이도기·박취득]과 4집(2007년) [김세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집이 편찬될 당시에는 모방 신부 서한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3위 순교복자에 대한 모방 신부의 기록이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 연구소에서 모방 신부 서한의 대조역주본을 편찬하고 있기 때문에 3위 순교복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3위 순교복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순교자 박(취득) 라우렌시오

모방 신부는 1836년 12월 9일자 서한에서 어느 신자가 기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 라우렌시오의 순교 관련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여기에는 박 라우렌시오의 체포·순교 연도, 순교 장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순교자의 성(姓)과 세례명, 체포와 순교 사정 등을 다블뤼 주교의 기록(주교의 1857년경 서한(박취득 약전), 순교자 약전(1859년), 순교사 비망기(1860년))과 비교해 보면 1799년 홍주 순교자 박취득(라우렌시오)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황무실이라는 동네 출신의 박 라우렌시오는 이웃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매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을 받는 동안에 그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용감하게 고백하자고 함께 있던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관장과 포졸들이 신자들이 배교하도록 번갈아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을 때에, (박) 라우렌시오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자고 설 새 없이 말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꼭 지키라고 권고했었습니다. (박) 라우렌시오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난 관장은 포졸들에게 “그가 죽기까지 매질하라”고 하였습니다. 100대쯤 맞았을 때, 포졸들은 (박) 라우렌시오가 이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후에 (매를 맞아 누워 있던) 라우렌시오가 한 대도 맞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활기찬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에 놀란 포졸들에게 (박) 라우렌시오는 “나는 아무리 매를 맞아도 죽지 않을 터이니,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목을 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목을 졸라 죽였지만, 박) 라우렌시오가 죽었을 때나 죽은 다음에 그의 전구(轉求)를 통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놀라운 일(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박취득이 혹독한 심문에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했으며, 무수한 매를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했다는 점, 특히 자기를 죽이려면 목을 매어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는 내용은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박취득의 출생지에 대해서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홍주 사람’[순교자 약전]이라고만 나오고 구체적인 지명은 확인이 안됩니다. 반면 모방 신부의 서한에서는 황무실[현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조선시대에는 덕산군 고산면에 속했는데 1914년에 예산군에 편입됨]이 박취득의 출생지로 나옵니다. 순교복자 박취득의 출생지가 황무실이었다는 증언을 모방 신부 서한을 통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방 신부는 박취득이 죽기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목격할 세 명의 증언자[신자의 보고서에 언급되었을 것임을 수소문하여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모방 신부가 순교자의 시복 절차를 염두해 두고 증언 기록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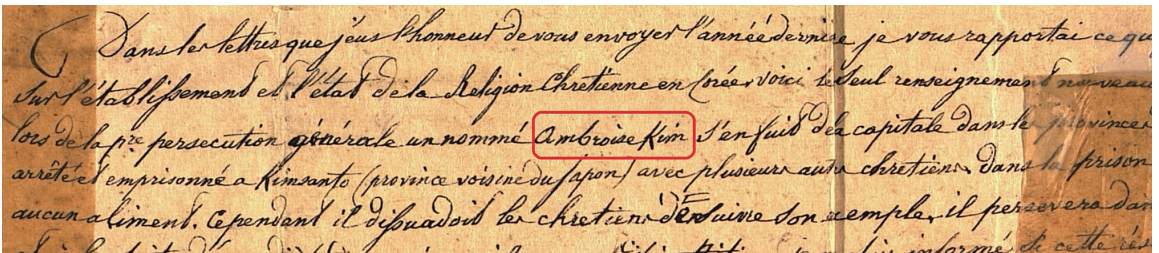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순교자 이(도기) 바오로

모방 신부는 위와 같은 1836년 12월 9일자 서한에서 순교자 이 바오로도 언급했습니다. 박취득의 순교 사정을 보고서로 작성했던 신자가 이 바오로에 대해서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바오로의 순교 사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묘소에서 일어난 기적 일화만 나옵니다. 다블뤼 주교의 기록(주교의 1855년 서한(이도기 약전), 순교자 약전(1859년), 순교사 비망기(1860년))과 비교해 보면 1798년 정산 순교자 이도기(바오로)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이 바오로라는 사람은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지키도록 지시받은 포졸들은 밤중에 그 묘소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이 바오로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이 죽었으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묘소에서 나는 광채를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블뤼 주교는 신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얻어 프랑스로 번역한 다음 1855년에 서한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이도기의 순교 사정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 서한 마지막에 감옥의 간수가 이도기의 아내에게 전해주었다는 기적 일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방 신부의 서한에서는 ‘묘소’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는데,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서는 순교한 날 밤새 광채가 ‘시신’ 주위를 둘러쌌다고 나옵니다. 증언이 채록되어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방 신부는 이 기적 일화도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수소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방 신부는 박 라우렌시오와 이 바오로가 대략 1800년 이전에 순교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40년이 채 안된 사건을 알거나 들었다고 하는 신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림2] 모방 신부의 1837년 11월 17일경 서한(A-MEP, Vol.1260, f.140)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순교자 김(세박) 암브로시오

모방 신부는 바쁜 사목 활동 일정 중에서도 1837년 11월 17일경 서한을 작성하면서 또다른 순교자 김 암브로시오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한에서도 체포·순교 연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블뤼 주교의 기록(순교자 약전(1859년), 순교사 비망기(1860년))과 비교해 보면 1828년 대구 순교자 김세박(암브로시오)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1년) 최초의 전국적인 박해 때에, 김 암브로시오가 서울을 떠나 남쪽 지방으로 피난했습니다. 이 지방은 일본과 가까운 곳입니다. 체포된 그는 경상도 (감영이 있는 대구의) 감옥에 다른 여러 명의 신자와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았으나, 함께 갇혀 있던 다른 신자들에게 자기를 본받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김 암브로시오는, 결심에 따라 철저한 단식을 한 결과 20일 만에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처럼 철저한 단식을 하기로 한 이유가 천주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인지 제가 알아보았으나, 사람마다 모른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김 암브로시오가 죽자, 신자들은 그의 유품을 가져가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귀한 유물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 신자들에게 김 암브로시오가 옥사한 것과 관련하여, 또 그분의 전구(轉求)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모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경상도 감영이 있는 대구의 감옥에서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은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모방 신부는 김세박이 단식을 한 이유가 특별한 계시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반면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신자들 사이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그렇게 처신했다는 말이 있다고 나옵니다. 모방 신부의 질문이 신자들 사이에 퍼져 하느님의 영감 때문이라는 전승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김세박의 생애와 순교, 순교 이후 신자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내용은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나오지만, 1801년 이후 김세박이 피신한 곳이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남쪽이라는 것과 그의 죽음 이후 신자들이 유품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은 모방 신부 서한에서만 확인되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방 신부의 두 서한을 통해 순교복자 이도기(바오로), 박취득(라우렌시오), 김세박(암브로시오)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번역·연구되는 선교사제들의 서한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소를 비롯하여 교회사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번역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1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2년 7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